

2015 광주·전남 문화재단 지원사업

상다리 휘젓네

남도 '문화밥상'

광주시문화재단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올해 더욱 풍성해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발레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이색 아트퍼포먼스를 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장했다. 최근 확정된 시·도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한 해 이 지역에서 열리게 될 중요 문화·예술행사를 미리 엿볼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주민참여와 상주 단체 육성=올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특징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장 상주 단체 집중 육성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레지던시 진행단체로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 은암미술관, 아트주를 선정했다.

대인시장에 터를 잡고 있는 미테우그로는 오는 4월부터 국내외 작가들을 대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시도 한다. 올해는 광주 지역 신진작가와 기획자를 발굴하고, 해외 예술공간과 교류도 추진한다.

예술의거리 은암미술관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레지던시를 연다. 동구 계림동의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해 레지던시 참여 작가와 주민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주민들이 작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열게 된다.

광주의 대표 근대문화유산이 많은 양림동에서는 아트주가 오래된 선교사사택을 리모델링해 예술의 입김을 불어 넣는다. 호랑가시나무장작소를 중심으로 양림동 일대를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광주문화재단은 12개의 상주단체들도 지원한다. 전통문화연구회 일수는 난버빌 타악뮤지컬 '몽키즈'를 더욱 보완해 선보이고, 놀이개 신명은 마당극 형식으로 한국사의 아픔을 다룬 '술래소리'를 무대에 올린다.

광주여성필화모노오케스트라는 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하고, 푸른연극마을은 '사평역'을 통해 관객을 맞는다.

광주문화재단이 자체 기획해 진행하는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도 윤곽이 드러났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오는 4월부터 무등산 전통문화관에서 '光, 7色 7舞-무등을 춤추다'를 무대에 올린다. 한국무용을 현대적인 가무악극으로 변형한 이야기가 듬뿍 담긴 무대가 기대된다.

또 디딤돌은 무등산 편백나무숲과 전통문화관에서 '무릎에서 무릎의 사계' 페스티벌을 연다. 국악공연과 체험학습이 결합된 이색 행사다. 이 밖에 사단법인 우리문화예술원은 산수동 문화광장에서 '통통 문화장터와 함께하는 토요일'을 주최한다. 문의 062-670-7423.

◇예술로 풀이낸 혁신도시 효과=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올 해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주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이끄는 문화단체 씨클이 진행하는 동명의 퍼포먼스 '씨클'은 이주기관 가족들이 남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프로그램

- 광 신진작가 발굴·12개 상주단체 지원
- 주 타악 뮤지컬 '몽키즈'·마당극 '술래소리' 등
- 전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작가 '씨클'
- 남 혁신도시 이주기관 임직원·가족 프로그램 진행

램이다. 오는 12월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내 한빛홀에서 '빛과 에너지 그리고 순환'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발레가 어우러진 색다른 예술을 선보인다. 비디오맵핑, LED 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흥겨운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화순 도곡의 소소미술관도 작가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직장인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매달 문학, 공연, 전시가 어우러진 '문학과 전시의 만남'을 연다. 시 낭송, 시극, 공연 등 다양한 무대 행사를 대상으로 한 마을미술교육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 또 농업철부선 객실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배 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따도는 미술관'도 함께 운영한다. 문의 061-280-58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타악뮤지컬 '몽키즈'

연극 '사평역'

새 봄...신예들의 무대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신인음악회 24일 금호아트홀

광주피아노아카데미 2015 신인음악회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1990년 창단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박행숙)는 작곡가별 테마 기획 시리즈, 향토작곡가 피아노 신작연주회, 창작피아노 독주곡 공모 연주회 등 매년 2차례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특히 매년 새로운 피아니스트를 발굴하는 신인음악회를 통해 지역 출신 젊은 음악가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에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는 김현민, 박설아, 임지윤, 김성중, 정유진, 김경혜씨다.

레퍼토리는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쇼팽의 '폴레네이즈 환상곡' 작품



김현민

박설아

61', 발라카레프의 '이스라엘메이' 오리엔탈 판타지 작품 18', 라벨의 '밤의 가르파드' 중 '스카르보', 현대작곡가 히나스테리의 '피아노소나타 1번 작품 22',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소나타 2번'이다. 문의 010-7117-6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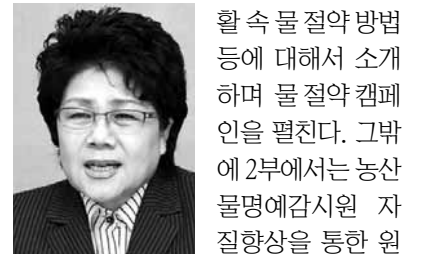
생명을 위한 물

주부교실전남지회 19~20일 '세계 물의 날' 행사

(사)전국주부교실전남남도지회(회장 이송자)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 다양한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9~20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물 절약 실천 결의대회 및 특강, 물 정보전시,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주제는 '저탄소 녹색 성장과 생명을 위한 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사랑 10대 수칙'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물 절약 및 오염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 및 박영춘 한국수자원공사전남지역본부장의 특강도 열린다.

물 정보 전시에서는 기후변화, 세계 물부족 현황, 우리나라 강수의 특성, 생



이송자 회장

활 속 물 절약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며 물 절약 캠페인을 펼친다. 그밖에 2부에서는 농산물명예감시원 자질향상을 통한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

관리원 전남지원 윤현미 주무관이 농산물명예감시원 교육도 실시한다.

5월에는 남도의 첫출인 영상강을 살리기 위해 맑고 깨끗한 셋강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수생식물 식재, 하천정화 활동, 캠페인도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